

전남도의회 상임위 배정 '딜레마'

전남도의회가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윤리 강령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와 상임위 조정 등 현실적 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은 해당 상임위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지방의원 윤리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례개정을 놓고 도의회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직무관련 종사자의 상임위 배제가 이뤄질 경우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 상임위 조정 과정에 어려움

'직업 관련 상임위 배제' 윤리강령 조례 개정 추진에

의원들 "전문·효율성 저하...농어업 예외 둬야" 반발

도 뒤틀린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전남도의회는 '농도'(農道)라는 특성상 농어업과 관련된 의원들이 많아 농수산환경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윤리강령을 개정하면서 농어업과 관련된 의원들이 많은 전남의 지역적 사정을 감안해 농수산환경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겸직금지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홍수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전남도의회의 경우 농어업에 관련된 의원이 많아 겸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상임위 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행안부 규정에도 농림어업에는 예외를 두는 단서 조항이 있어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 이지 못하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최소한의

제도적인 틀을 갖추자는 취지에서 관련법이 개정된 만큼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A의원은 "법 개정 취지대로 상임위의 소관 직무관련 종사 의원을 원칙적으로 배제할 경우 전문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취지를 무시할 경우 각종 이권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1일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각 상임위와 운영위 등에서 협의한 뒤 오는 14일 이 문제를 처리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난 2일 강력한 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웨스트 자바 지진 발생지에서 구조대원들이 3일 생존자 구출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의회 박인환 의장

전국의장협회 부회장 선임



박인환 전남도의회 의장이 최근 인천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1년 임기의 박 부회장은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16개 광역 시도의회의장을 포함한 협의체로 2000년 8월 출범했다.

/최권일기자 cki@

친환경자동차 전문인력 양성

오늘 '조선대 양성센터' 개소

광주시가 추진하는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뒷받침할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 본격화된다.

광주시는 4일 조선대학교에서 '친

환경 자동차기반 부품소재 인재양성 센터' 개소식을 갖는다.

이 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매년 50억원씩

250억원을 지원받아 친환경 자동차

부품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

드, 모터 등 친환경 자동차 부품소재 분야 선도인력 1천700여명을 양성하고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조선대 기계, 광 계열 7개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인재양성센터에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등 108개 협력사가 참여한다.

전남대 '광기술 기반 융합부품소재 산업 인재양성센터'는 22일 개소한다.

/윤영기자 penfoot@

녹색의 땅 전남 '그린카' 보급 앞장

전남도-현대차 '온실가스 저감 협력' 협약

'녹색의 땅'을 기치로 내건 전남도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차량 및 '그린카' 보급에 적극 나선다.

전남도는 4일 오후 3시 도청 정암 용실에서 현대자동차와 기후변화 주범인 온실가스 줄이기와 저탄소 녹색

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갖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오는 2012년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축 사업, 국가시책인 그린카 보급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

친환경 관련 행사 개최와 상호 협력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구온난화 정책에 공동 보조를 취하게 된다.

현대자동차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전남도 내 거주자가 구매할 경우 조기 출고, 도내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행사 등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지원 등에 나선다.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환경오염 줄이기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해 국가 시책인 그린카 보급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印尼 지진 피해 확대...최소 57명 사망

건물 1만여채 이상 붕괴...40여명 이상 매몰돼

인도네시아 자바섬 인근에서 2일 발생한 지진으로 적어도 5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지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자카르타 포스트 등 현지 언론과 외신들은 3일 이번 지진으로 적어도 57명이 숨지고 주택 등 1만여채 이상의 건물들이 붕괴됐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바 지역 전체에 걸쳐 적어도 57명이 숨졌으며 서부 자바주의 시안주르 등에서 40여명 이상이 매몰돼 있는 것으로 보여 사망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고 밝혔다.

또 지진피해가 집중된 서부 자바주의 시안주르와 가로, 수카부미, 따시말

라야, 반동, 보고르 등에서 주택과 학교, 회교 사원 등 1만여채 이상의 건물이 붕괴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부 자바의 해리완 주지사는 200명 이상이 고장과 머리 부상 등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수십로 밤밤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 구조작업을 독려하고 희생자들을 위로했다

/연합뉴스

"호랑이가 사자보다 똑똑해"

옥스퍼드대 연구팀 연구 결과

정글의 왕인 사자가 호랑이에 비해 힘이 좀 셀지 모르지만 똑똑하기로 따지면 호랑이가 한 수 위

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옥스퍼드대학의 동물학 연구팀이 호랑이, 사자, 표범, 재규어의 두개골 용적을 비교한 결과 호랑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고 밝혔다.

또 지진피해가 집중된 서부 자바주의 시안주르와 가로, 수카부미, 따시말

일간 텔레그래프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구팀은 각국의 박물관에 있는 사자 370마리, 호랑이 225마리, 재규어 32마리, 표범 42마리의 두개골을 조사한 뒤 몸집이 비슷한 것끼리 비교해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두개골의 크기는 지능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연합뉴스

대학편입의 해법은 '김영' - www.kimyoung.co.kr

2010년 자신의 실력을 최종대학에 끼어 넣을 수 있는 철학의 기회!

대학편입 성공을 역시, 김영

광주본원 김영편입학원 | 227-6088

남성 헤어 大山프리모남녀가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SBS·KBS 「사랑사랑」 방영

초슬립!!

걸50 만원~

최신형 헤어카트 태운다

귀여운 품질을 늘여주는
영원한 블렌저가 되겠습니다.

대표전화 : 010-4250-0150, 010-4250-0155
문자 이수희 010-900-9055

제88기 KPC경영진단사
Management Consultant Course

한국생산성본부 | www.kpc.or.kr

한국생산성본부

www.kpc.or.kr